

자 원스톱지원팀을 작년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서 지점이나 본사에서 IT와 관련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본사와의 원활한 업무관계를 위해 '유저 미팅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사 부서장들과 IT센터 부서장들이 만나 업무에 대해 자율적인 토의와 문제해결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파트를 만들어 VIP고객이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구현시켜줌으로써 VIP고객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IT센터에서는 플렉서블 타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직원과 운영직원의 업무스타일을 존중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

게 정하도록 했고, 집중근무 시간제(core time)를 운영하고 있다.

IT센터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와 스테디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벤치마킹해서 분석한 것을 발표하고, 이 제도를 확장하여 올해부터는 '넘버원 파트 플랜'을 실시한다. 각 파트가 넘버원이 될 수 있는 테마를 찾아 분석하고 발표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우증권은 일등전략으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조직임을 알 수 있다. **Users**

글 |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INTERVIEW - 금융 신지식인 유용환 상무

“IT에도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1999년도에 금융 신지식인으로 지정된 유용환 상무는 국내최초로 DIAL-VAN을 개발하였으며, 다산금융상을 수상했다.

1987년에 대우증권에 입사한 그에게 입사한 지 2년도 안돼 홈트레이닝이라는 프로젝트가 맡겨졌다. 당시 신기술 동향에 관심이 많았던 유용환 상무는 관련 자료의 스크랩에도 열심이었고, 일일이 복사해서 관련부서 상사들과 주의 동료들에게 배포해주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기PR을 한 셈이다.

유용환 상무는 소프트웨어공모전 대상, 뉴미디어 대상 정보화기업부문 기업대상, 대한민국 e금융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유용환 상무의 아이디어는 일종의 실탕물이다.

“전공이 물리학이며, 취미는 컴퓨터, 제2의 전공은 초심리학(심령과학)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문학도가 꿈이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사립 탐정 우주공학자가 꿈이었죠. 온갖 집학에 대해 깊지는 않지만 넓게 접하다 보니 때로는 엉뚱하고 아이디얼한 모습으로 아이디어가 실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잡다한 설정알맹이가 모여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을 접하면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죠”

유용환 상무가 개발한 세계 최초 포켓용 무선 주문 단말기 '블루칩' 개발도 발상의 전환에 의한 순수한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IT센터 본부장으로 부임 이후 선안정 후개발

전략에 따라 첫 번째로 기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작업, 두 번째는 별도의 백업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증권회사는 스피드가 경쟁력입니다. 제직년까지 주문속도와 시세를 100분의 1수준으로 단축하는 작업을 했고, 현재 1000분의 1로 단축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스피드라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셈이다.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불조심 포스터만 많이 붙었고, 한 공장에서는 불이 났을 때 상황대처방법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두 공장이 함께 불이 났을 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상황대처방법을 훈련시킨 공장은 무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국내 IT가 불조심하지는 표어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IT센터 전 직

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시나리오와 매뉴얼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얼마만큼 빨리 복구하느냐가 IT쪽에서는 생명이죠”

대우증권의 가장 큰 특성은 액티브 액티브 시스템이다. 전원과 통신망의 완벽한 이중화 작업을 마쳤다.

“사실 IT라는 것은 회사에서 커다란 경영 리소스 중의 하나입니다. 자본에 대한 ROI, 인력의 생산성 등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IT가 단순 지원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IT는 회사의 경영자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다, 못한다로 대응할 게 아닙니다. 우선

순위는 IT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영 측면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대우증권은 이를 위해 본사 기획실과 IT센터를 중심으로 IT리소스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대우증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IT 포커스 운동에 대해 “IT직원들은 프로입니다. 프로는 자기 몸값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 화시킨 것”이라고 압축했다.

유용환 상무의 다음 목표는 '신상품 출시 일주일 이내 지원'이다. 또한 고객별 맞춤 상품구성이 가능한 종합자산관리 계좌로써, 고객들이 대우증권 계좌를 모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Users**

